

구청질문 서면답변 요구목록 (제96회 임시회)

■ 질문요지

질문일자	질문의원	구 정 질 문 요 지	답변부서	비 고
2003.5.26 (월)	유응봉	1. 아현1,2,3동 및 공덕1,2동 단독주택을 다세대, 연립으로 용도 변경은 적정한가?	건축과	
		2. 마포구 65세이상 노인인원수(남,여) 및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은?	사회복지과	
		3. 아현1동의 환지 확정의 고시가격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택과	
		4. 동 기능전환의 활성화에 대한(강사료등) 문제점 및 조치사항, 앞으로의 방향은	주민자치과	
		5. 노인병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보건과	

구청질문 답변자료

- 건축과 -

위원회 질문의원	유 용 봉 의원(행정건설위원회)
질문요지	아현1,2,3동 및 공덕1,2동 단독주택을 다세대, 연립으로 용도변경은 적정한가?
<p>답변내용</p> <p>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의원님께서 주택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단독주택을 다세대 연립으로 용도변경은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p> <p>현재 우리구에서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건축법(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우선 검토한후 현장출장하여 무허가 건축물 축조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전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p> <p>현재까지 건축법규에 의거 처리하였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조항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로도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p>	

구청질문 답변자료

- 사회복지과 -

위원회 질문의원	유 용 봉 의원(행정건설위원회)
질문요지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 수(남·여) 및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은?

답변내용

항상 노인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유용봉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수는 남자 10,943명, 여자 15,647명으로 총 26,590명입니다. 이는 마포구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되며, 앞으로 노인 인구는 큰폭의 증가율을 보여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패턴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CSC(지역사회시니어클럽) 등을 통한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 저소득노인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경로연금제도 내실화, 각종 일거리제공사업등이 있습니다.

3.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장대책 마련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치매와 만성질환노인대책 강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4.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재가복지서비스기반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 노인예산은 노인을 위한 행사성 경비 등을 포함하여 약 6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신축 및 개축비 등입니다.

앞으로 노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크게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책방향에서 노인복지향상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합당한 역할 및 소득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준고령자층의 사회활동 참여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경륜있는 노인들이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내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도 하고 소득을 창출하여 노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일거리 제공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1,500여명의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거리제공을 위하여 처음으로 금년 5월 1일 아현1동을 시범동으로 하여 노인환경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골목청소, 청소년선도 등 봉사를 하고 월 97,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저분해진 뒷골목을 깨끗이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포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공동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은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장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치매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보험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예방적인 측면과 치료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의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여 그
가정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가족제도의
장점을 보완하고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소와 협의, 치매노인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을 의료적·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난 4 ~ 5월 91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에 대한 시설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립경로당 현대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현재 자료분석 중에 있습니다. 부분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경로당 관리를 지양하고 연차별로
3 ~ 4개소씩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7년내에 구립경로당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자료를 토대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파악
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치료·요양시설 확충 등 질병노인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
하기 위하여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 각 경로당사업의 활성화 등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서면답변

주택과

위원회 질문 의원 유 응봉 의원(행정건설위원회)

질 문 요 지 아현1동 환지확정의 고시가격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평소 구정발전과 주택재개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응봉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1동 자력재개발 지역은 1973년 7월 4일 불량주택지역 재개발 사업지정을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신청하여 19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79년10월23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1차관리처분계획(1~26블럭)인가 및 건축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지확정을 위해 2001년12월28일 환지확정처분용역을 착공하여 시행중에있고 용역준공은 2003년12월 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지역은 자력재개발구역(주민 스스로 건축을 해야하는 구역)으로 해당구역에 공공시설(도로)설치 예정지역내 지장물(건축물)이 있어 확정측량이 늦어지고 있거나 해당 주민과 계속 대화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입니다.

차후 환지확정처분후 청산은 가격평가 방법으로하고 가격 기준일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30조(청산금의 결정)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의 기준을 당해구역의 최초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인 1979년10월23일(1~26블럭)이 적용이 예상 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리구 재개발업무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서면답변

- 주민자치과 -

위원회 질문의원	유응봉 의원(행정건설위원회)
질문요지	동 기능전환의 활성화에 대한(강사료 등) 문제점 및 조치사항,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내용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유응봉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예산은 총 316,480천원이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매월 4개 강좌를 기본으로 과목당 180천원부터 240천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 특새강좌 등 추가 개설 강좌에 대하여 강사료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선정은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수경력이 있는자, ○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경험자, ○ 어학 분야의 경우 해당 문화권 장기 어학연수자 또는 장기생활 경험자, ○ 기타 해당분야에 조예가 깊고 경험이 풍부하여 강의능력이 탁월한 자를 추천 또는 동계시판, 리후렛,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집공고한 후, 이력서 및 자격증 등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자격증 미소지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강좌는 무료 자원봉사자가 운영함에 따라 강의수준이 다소 미흡하거나 열악한 시설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적은 곳도 있으나,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오히려 동아리를 형성하는 등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으며, 수강생이 적은 주민자치센터나 강좌를 전문적인 특성을 살려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취미·교양 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시켜 동단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조례의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징수·관리·지출할 수 있으므로 우수 강사 확보 및 지역여건에 맞는 강좌 개설이 가능하며 수익자부담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면 프로그램 활성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예산지원에 의한 소극적 운영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수강자의 부분적 부담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자료

- 지역보건과 -

위원회 질문의원	유용봉의원(행정건설 위원회)						
질문요지	노인병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						
답변내용 □만성퇴행성질환 추정인구							
2002.12. 현재(단위:명)							
연령별	인구수	질 환 명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치매	암
65세이상	24,959	5,615 (22.4%)	2,714 (10.8%)	1,881 (7.5%)	9,412 (37.7%)	715 (2.9%)	491 (1.9%)
※서울시민보건지표자료참조 - 65세이상인구는 마포구 전체인구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고혈압의 유병률은 1997년보다 상승함을 보였으며 여자65세 이상 가장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시민 고혈압 유병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상황은 정기검진을 통한 고혈압 환자 발견율이 높아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당뇨인구는 10.8%로서 6위에 들어가는 순위로 내분기 영양 및 대사질환중 가장 유병률이 높은 당뇨는 사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절단, 말기 신장질환, 생산연령층 성인 실명의 가장 원인적인 질환으로 여자보다는 남자의 유병률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뇌졸중 즉, 중풍은 일단 발생하면 매우 위중하여 1년 이내 사망 치명률이 68%되며,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고 각종불능 때문에 힘들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뇌졸중의 유병률 상승은 다소 높은 것으로 65세 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골다공증 유병률 차이가 인구 1,000명당 여자 15.37명 남자가 0.74명으로 보이고 있고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음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민이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치매는 65세이상에서 집중적인 양상을 보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2배이상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입원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5.48%)
- 연령별 암 유병률은 위암과 장암, 간암,폐암 등은 65세이상연령에서 가장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반면 자궁암과 유방암의 경우는 45~6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남성암 유병률은 65세 이상 남자의 경우 위암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수치는 중복이 많은 것으로 연인원에 수 치이며,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서 신체가 늙어 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좀더 노년기를 힘들지 않게 지내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향후계획

1. 의료비지원사업(회귀질환자, 가정간호),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골다공증 검사실운영
2. 관절염자조교실과 수중운동운영으로 통증관리 및 삶의 질 향상
3. 경로당을 통한 무료검진시 혈압 및 혈당 측정으로 고혈압 및 당뇨를 사전예방
4.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무료검진실시
5. 경로당을 통한 건강교실을 열어 건강정보제공
6.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실시 많은 홍보로 많은 어르신 참여유도

구청질문 답변자료

- 건축과 -

위원회 질문의원	유 용 봉 의원(행정건설위원회)
질문요지	아현1,2,3동 및 공덕1,2동 단독주택을 다세대, 연립으로 용도변경은 적정한가?
<p>답변내용</p> <p>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의원님께서 주택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단독주택을 다세대 연립으로 용도변경은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p> <p>현재 우리구에서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건축법(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우선 검토한후 현장출장하여 무허가 건축물 축조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전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p> <p>현재까지 건축법규에 의거 처리하였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조항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로도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p>	

구정질문 서면답변

- 주민자치과 -

위원회 질문의원	유응봉 의원(행정건설위원회)
질문요지	등 기능전환의 활성화에 대한(강사료 등) 문제점 및 조치사항,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내용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유응봉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예산은 총 316,480천원이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매월 4개 강좌를 기본으로 과목당 180천원부터 240천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 틈새강좌 등 추가 개설 강좌에 대하여 강사료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선정은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수경력이 있는자, ○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경험자, ○ 어학 분야의 경우 해당 문화권 장기 어학연수자 또는 장기생활 경험자, ○ 기타 해당분야에 조예가 깊고 경험이 풍부하여 강의능력이 탁월한 자를 추천 또는 동계시판, 리후렛,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집공고한 후, 이력서 및 자격증 등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자격증 미소지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강좌는 무료 자원봉사자가 운영함에 따라 강의수준이 다소 미흡하거나 열악한 시설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적은 곳도 있으나,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오히려 동아리를 형성하는 등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으며, 수강생이 적은 주민자치센터나 강좌를 전문적인 특성을 살려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취미·교양 프로그램운동을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시켜 동단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조례의 범위안에서 수강료를 징수·관리·지출할 수 있으므로 우수 강사 확보 및 지역여건에 맞는 강좌 개설이 가능하며 수익자부담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면 프로그램 활성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예산지원에 의한 소극적 운영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수강자의 부분적 부담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자료

- 지역보건과 -

위원회 질문의원	유용봉의원(행정건설 위원회)						
질문요지	노인병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						
답변내용 ■만성퇴행성질환 추정인구							
2002.12 현재(단위:명)							
연령별	인구수	질 환 명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치매	암
65세이상	24,959	5,615 (22.4%)	2,714 (10.8%)	1,881 (7.5%)	9,412 (37.7%)	715 (2.9%)	491 (1.9%)
※서울시민보건지표자료참조 - 65세이상인구는 마포구 전체인구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고혈압의 유병률은 1997년보다 상승함을 보였으며 여자65세 이상 가장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시민 고혈압 유병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상황은 정기검진을 통한 고혈압 환자 발견율이 높아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당뇨인구는 10.8%로서 6위에 들어가는 순위로 내분기 영양 및 대사질환중 가장 유병률이 높은 당뇨는 사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절단, 말기 신장질환, 생산연령층 성인 실명의 가장 원인적인 질환으로 여자보다는 남자의 유병률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뇌졸중 즉, 중풍은 일단 발생하면 매우 위중하여 1년 이내 사망 치명률이 68%되며,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고 각종불능 때문에 힘들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뇌졸중의 유병률 상승은 다소 높은 것으로 65세 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골다공증 유병률 차이가 인구 1,000명당 여자 15.37명 남자가 0.74명으로 보이고 있고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음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민이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치매는 65세이상에서 집중적인 양상을 보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2배이상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입원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5.48%)

- 연령별 암 유병률은 위암과 장암, 간암,폐암 등은 65세이상연령에서 가장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반면 자궁암과 유방암의 경우는 45~6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남성암 유병률은 65세 이상 남자의 경우 위암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수치는 중복이 많은 것으로 연인원에 수 차이이며,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서 신체가 늙어 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좀더 노년기를 힘들지 않게 지내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향후계획

1. 의료비지원사업(회귀질환자, 가정간호),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골다공증 검사실운영
2. 관절염자조교실과 수중운동운영으로 통증관리 및 삶의 질 향상
3. 경로당을 통한 무료검진시 혈압 및 혈당 측정으로 고혈압 및 당뇨를 사전예방
4.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무료검진실시
5. 경로당을 통한 건강교실을 열어 건강정보제공
6.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실시 많은 홍보로 많은 어르신 참여유도